

사회

하루 10.5시간 근무에 주·야 교대까지...

혹사 당하는 高3 실습생

기아차 광주공장 특성화고생 뇌출혈 의식불명

기업체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뇌출혈 증세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실습생들의 근로·복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아차 광주공장과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김모(17·영광실고 3년)군이 공장 기숙사 앞에서 쓰러졌다. 김군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21일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김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특성화고 실습생 62명은 이 공장에서 정규직과 함께 1일 10.5시간, 주당 52.5시간 근무하는 등 강도

높게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규직과 똑같이 2시간 간섭을 포함해 10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도 했다. 이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본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도 하루 8시간, 주당 46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업체들이 고교 실습생을 선호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정규직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취업과 연 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김군의 경우처럼 기업체들

이 특성화고 실습생을 정규직과 같은 생산 현장에 투입해 초과 노동을 일삼고 있음에도 이를 학교나, 교육청 노동청 등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13개 특성화고 3학년 학생 1882명, 전남에서는 63개고 4149명이 수백곳에 달하는 기업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거나 예비취업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 담임교사나 취업담당 교사들은 실습생들의 근로여건 등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 대부분 미성년자인 이들 실습생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데다 일에 대한 관심 등이 높아 회사 측의 요구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군의 경우와 같은 불상사

재발하지 않으려면 실습생에 대한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생들의 노동·인권·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있는 교과부와 전남교육청은 전국의 모든 실습현장과 취업 학생의 노동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생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기 입학한 학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박정욱기자 penfoot@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21일 오전 광주역 대합실에 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혼잡을 이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외압 여부 못밝힌 전남문진원 비리

도의원 등 압력 규명 못하고 부군수 등 3명 입건 마무리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비리 수사에서 경찰이 고위공무원과 정치권 인사 등의 외압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진흥원 직원 특별채용 대가로 그림과 명품지갑을 받은 전남 모 부군수 문모(52)씨, 문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비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진흥원 조모(여·38) 팀장과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부정 취업한 전남도위원의 딸 장모(29·여)씨 등을 각각 뇌물수수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9년 7월 진흥원 관리부서인 전남도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채용 대가로 조씨로부터 시가 150만원 상당의 동양화 1

점을 받은 뒤 채용 다음날 조씨로부터 7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의 동생이나 친구를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7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7월 진흥원 직원 채용에 응시하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합격한 혐의다.

경찰은 전남도 국장급 인사와 도의원 등이 이번 인사 비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핵심증인인 전남 진흥원장의 자살로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증거는 있지만 관련자들이 상충부나 도의원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한 김정일 추모

포털에 카페 개설

경찰, 위법 여부조사

불법 조업 담보금 안낸 中 어선 선장 구속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지 않은 중국어선 어선 요대련이 11호 선장 오모(38)씨를 구속하고 어구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20분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4마일 침범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67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어업지도선에 붙잡혔으며 담보

금 7000만원을 내지 않아 구속됐다. 나머지 선원 3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됐다.

어업관리단은 지난 1일부터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이후 중국 선장 3명을 구속했다. 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68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37억원을 징수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국내 유명 포털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카페 2개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김정일 위원장을 추모하는 카페 2곳이 유명 포털에 개설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9일 개설된 이 카페는 회원 수 10명 미만에 게시글도 10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미미한 수준으로, "북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해당 카페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추모글 외에 그의 생전 업적을 찬양하는 글 등 국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글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흡연 중학생 '꿀밤' 훈계하다 입건

○식당 화장실 문을 잠근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학생들을 나무라며 '꿀밤'을 때린 40대 회원이 학생들의 신고로 입건.

○21일 광주서부경찰에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박모(43)씨는 지난 20일 밤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운 이모(15)군 등 중학생 4명의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것.

○식당 화장실을 사용하려다 이 군 등을 발견하고 훈계하다 입건된 박씨는 "어린 학생들의 버릇을 고치려 나무랐는데 일이 꼬였다"며 씁쓸해하는 표정.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채팅 사이트서 만나

폭행하고 금품 갈취

광주광안경찰은 21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박모(38)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밤 11시에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음

식점 앞에서 귀가하려던 A(여·36)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와 A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돼 이날 처음 만났으며, 박씨는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다며 화끈기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랑의 동지죽

(사)농기주부모임 대촌농협분회(분회장 김영순)회원 30명은 21일 동지를 맞아 광주 남구 대촌농협 앞에서 1000명에게 사랑의 동지죽을 팔았다. 이 행사는 9년째 이뤄졌으며, 수익금은 40개 경로당의 봉사활동비용으로 사용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정일 쓰나미'에 식당·유형업소 '뽕뽕'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연말 분위기가 뽕뽕 얼어붙었다. 예전 이맘때 같은데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송년회와 회식으로 식당과 유흥업소가 북적거렸지만 김정일 사망이라는 메가트립 변수 돌출로 곳곳에서 연말이 실종했다는 푸념이다.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사망이 알려진 지난 19일 정오를 기해 전 공무원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4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광주 한 구청장은 상무지구 모 한정식집에서 가지려던 송년모임을 급하게 취소했다. 또 A기관장은 지역원로와 갖기로 했던 간담회 일정을 취소했으며 B기관은 과별 송

공무원 비상근무로 송년모임 취소 잇따라 해외 시찰도 자제... 연말 특수 사라져 울상

년회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지휘관이 교체된 광주 지역 3개 경찰서의 서장 이·취임식도 대북 경계감화 등 비상근무 지침에 따라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비상이 걸리자 관가 주변 식당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공서 주변의 지역요식업체·유흥업소 상인들은 '비상사태'에 울상이다.

상무지구 음식점 한 관계자는 "미리 잡힌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연말에 많은 수익을 올리

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연시를 맞은 여행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당장 21일 출발하기로 했던 광주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일정이 연기됐다. 공무원 부부 88명이 2박 3일간 제주도에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비상근무로 떠날 수 없게 됐다.

업계는 당분간 공무원 여행객은 포기한 상태다. 시급하지 않은 출장을 제외한 포상·외유성 행사를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또 막연한 불안심리로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여행객도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 12월 19일